

# “더 낮은 자세로 사회복지사 자부심 되찾겠다”

정석왕신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

최근 선거서 당선…임기 내내 3월부터  
목포 출신…현장·행정 섭렵한 전문가  
상근 회장·예산 현실화·연대 등 공약

“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길이 의미가 달라  
진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1  
40만 사회복지사 곁에서 일하겠습니다.”

목포 출신 정석왕(56·사진 오른쪽) 사회복지  
사가 최근 치러진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
장 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.

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1일부  
터 3년이다.

목포 태생인 정 신임회장은 광주대 사회복지  
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대학원 석사, 경영  
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.

제14·15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,



지난 3일 치러진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정석왕 사회복지사(56·사진 오른쪽)가 당선증을 거머쥐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<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>

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, 제  
주장애인요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현  
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.

이번 선거에서 정 신임회장의 승리 요인으로

는 ‘진정성 있는 배수진’이 꼽힌다.

그는 23년간 운영해 온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 
직을 과감히 사퇴하고 협회장으로서 여의도와  
세종에 상주하며 정책 협상에만 전념하겠다는  
‘상근 회장’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의 표

심을 흔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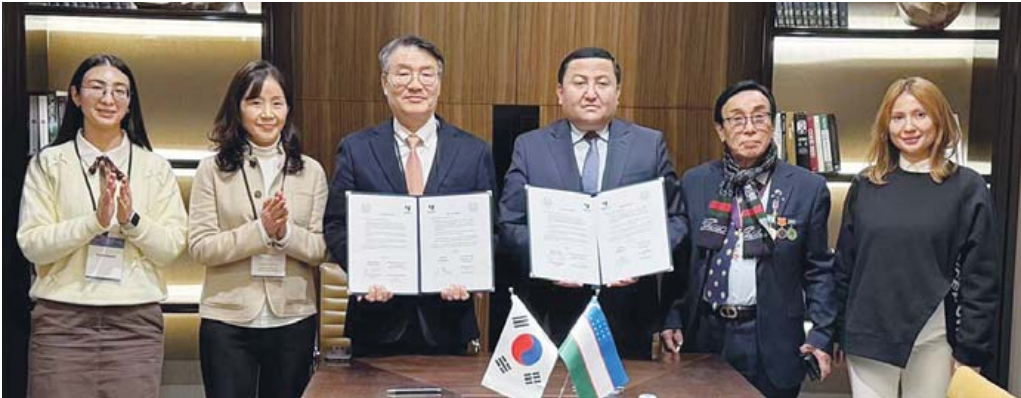
또 선거 기간 ‘협장의 정석, 협회의 정석으로  
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되찾겠다’는 목표로 ▲  
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제도·예산 현실  
화 ▲분야를 넘나드는 복지 연대 실천 ▲존중받  
는 현장 조성 등을 강조했다.

이와 함께 정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▲사회복  
지사법 제정을 통한 권리 보장 ▲연대를 통한  
강력한 복지 동력 구축 ▲보조금 지급 연령 상  
향 등 보수교육 체계 개편 ▲디지털 소통 플랫  
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.

정 신임회장은 “자나온 여정의 어느 순간을  
떠올려 봐도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이 늘 그 자  
리에 함께 있었다”며 “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 
보태준 분들의 온기가 큰 힘이 됐다”고 감회를  
전했다.

이어 “당선이라는 기쁨보다 여러분께 어떻게  
보답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  
온다”며 “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진심을 다  
해 사회복지사의 시대를 열어가겠다”고 포부를  
밝혔다.

/목포=정해성 기자



## 호남대-우즈베크 국립대학 ‘교육 협력’ 강화

호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주요 국립대학  
과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.

8일 호남대에 따르면 박상철 총장과 손완이  
국제교류처장은 최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  
문 스퀘어에서 열린 ‘제2회 한-우즈베크 대학총장  
포럼’에 참석해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.

이번 행사는 한국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고  
등교육과학혁신부가 공동 주최했으며, 양국 25  
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단이 참여해 미래 고등  
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호남대학교는 ▲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  
교 ▲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▲나

만간 국립기술대학교 ▲나보이 국립대학교 등 4  
개 국립대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력 양해각서(M  
oU) 및 업무협약의향서(LoI)를 체결했다.

협약에는 학생·교수 교류, 공동 연구 수행, 학술  
행사 공동 개최, 복수학위 추진 등 실질적 국제  
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.

박상철 총장은 “AI 시대 글로벌 융합형 인재  
양성이라는 포럼 주제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 
국제협력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”며 “이번 협정  
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대학과의 교류가 보다  
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  
다.

/박선옥 기자



## 광양경제청 ‘중기-벤처캐피탈 투자유치마트’ 성료

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“최근 광주 라마  
다플라자 호텔에서 ‘2025년 전남 중소기업-벤  
처캐피탈 투자유치마트’를 개최했다”고 8일 밝  
혔다.

이번 행사는 광양경제청과 전남테크노파크,  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(KITIA)가  
공동 주최했으며, 지역 중소기업과 수도권 벤처  
캐피탈(VC) 관계자들이 만나 기술·시장 동향  
을 공유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 
다.

올해는 기계·장비, 화학, 전기·전자 분야 등 1  
4개 기업이 자체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

는 투자설명회(IR)를 가졌으며 포스코기술투  
자, IBK벤처투자, 하나벤처스, 코오롱인베스트  
먼트 등 8개 유력 VC가 참석해 기업들과 1대1  
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.

일부 기업과는 후속 투자를 협의하는 등 긍정  
적인 신호를 주고받았다.

구충곤 청장은 “전남 기업들의 혁신성과 성  
장 잠재력을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에 직접 알릴  
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 기  
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투  
자 유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 
다”고 말했다.

/광양=양홍렬 기자

## 참푸른글로벌, 담양군에 돼지고기 400kg 기탁

담양군복지재단은 “최근 담양축산물종합유  
통센터에서 농업회사법인 (유)참푸른글로벌  
의 돼지고기 400kg(400만원 상당) 후원품 기탁  
식을 진행했다”고 8일 밝혔다.

기탁식에는 송석찬 참푸른글로벌 대표이사  
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증  
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.

참푸른글로벌은 양돈 사육부터 도축, 가공,  
유통에 이르는 축산 토털 솔루션을 구축한 종합  
축산 기업이다. 특히 HACCP-ISO 9001 인증을  
획득해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7  
년 담양 도축장을 인수한 이후 매년 복지재단을  
통해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

송석찬 대표이사는 “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 
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품을 마련했다”며  
“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  
는 기업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

/담양=정승훈 기자

## 장성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,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

장성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“최근 저소득  
고령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‘따뜻한 겨울나기’  
봉사 활동을 펼쳤다”고 8일 밝혔다.

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  
금으로 마련됐으며, 각 읍·면을 누비는 집배 주  
무관들과 우체국의 추천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  
에 놓인 18가구를 선정했다.

봉사단은 연탄 900장(3가구)과 김장 김치 15  
0kg, 쌀 300kg(15가구) 등 총 270만원 상당의  
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  
다.

봉사단원 이원철 주무관은 “평소 우편물을  
배달하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  
이 쓰였는데, 이번 기회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



릴 수 있어 뿌듯하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정은기 행복나눔봉사단장은 “앞으로도 집배  
원들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  
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 
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/장성=김문태 기자

## (사)코코넛·박이레씨, 나이지리아 축구단 지원 ‘맞손’

광주에 본부를 둔 국제 NGO 단체 사단법인  
코코넛이 20대 청년과 손잡고 나이지리아 청소년  
축구 육성에 나섰다.

코코넛 한국본부는 8일 “박이레(22) 나이지  
리아 WILLYJOE17 축구클럽 구단주가 지난달  
부터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이코로  
두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축구 클럽에 매월 50  
만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”고 밝혔다.

사단법인 코코넛을 방문해 협약을 작성한  
박 구단주는 “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 
코코넛이 펼치는 다양한 해외 구호사업에 대한  
얘기를 듣고 의미 있는 해외 축구 지원에 나서  
게 됐다”며 “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코코넛에  
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

WILLYJOE17 축구클럽은 현지인 코치 2명  
과 감독 1명으로 구성됐으며 코코넛 나이지리



아 지부의 한국인 지부장과 팀장이 총괄 관리하  
고 있다. 첫 지원금은 지난달 현지 3개 팀의 유  
니폼 제작에 사용됐다.

최윤정 코코넛 회장은 “22세의 나이에 해외  
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 
감동적인 일”이라며 “지구촌을 하나로 보는 구  
단주에게 박수를 보낸다”고 전했다.

/박희중 기자

## 광주 사랑의열매, 서구청서 ‘희망나눔캠페인’ 홍보

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(광주 사랑의열매)  
는 8일 광주 서구청에서 ‘희망2026나눔캠페인’  
홍보 활동을 펼쳤다.

서구 ‘2025년 기부주간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 
번 행사는 서구청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 
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구청 앞 광장에서는 푸드트럭을 통해 어  
묵 200인분을 나눴으며, 1층 홍보 부스에서는 사  
랑의열매 배지·리플릿·하프 등을 배부하며 캠페  
인을 알렸다.

광주 사랑의열매와 서구가 함께하는 2025년



기부주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.

/이연상 기자

##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‘5·18 시민헌혈’ 강의로 기부



부했다.

김 원장은 지난 5월 ‘옛 광주적십자병원’ 임시  
개방 기간에 맞춰 시민헌혈 캠페인을 펼쳤으며,  
8월부터는 ‘5·18 시민헌혈에 나타난 연대와 나  
눔’을 주제로 헌혈의집 총장로센더, 오월여머  
니집, 광주대, 동강대 등에서 총 8회 강연했다.

김동수 원장은 “5·18 시민헌혈 특강과 이번  
강의로 기부가 우리 지역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 
이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  
다.

/이연상 기자



## 전남 관광의 날 기념식 성료

전남도는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관광업  
종사자를 격려하고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결의  
를 다지는 제52회 전남도 관광의 날 기념식을  
열었다.

기념식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, 윤영  
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, 홍  
일성 전남관광협회장, 임춘임 전남문화관광해  
설사협회장, 관광업 종사자, 유관기관 관계자  
등 200여명이 참석했다.

이날 참석자들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와 20  
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다짐하고 내년 대  
형 이벤트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의지를 높  
였다.

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 격려사를 통해 “올  
해 전남 관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‘바람  
속에서도 뿌리를 참 잘 내렸다’는 점”이라며  
“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마다 개성 넘치  
는 축제가 전국에 명성을 높였고 반값여행 같은  
기발한 시도가 대한민국 관광 시장을 놀라게 했  
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/김재정 기자



## 전남도 ‘청년 소통 워크숍’

전남도는 지역 청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
제2회 청년 소통 워크숍을 최근 이틀간 여수에  
서 열어 청년정책 역량 강화와 교류 거버넌스를  
다졌다.

워크숍에서는 전남도 청년협의체인 ‘청년의  
목소리’를 비롯해 시·군과 대면, 광주의 청년정  
책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안팎의 현안을  
논의하고 소통·교류했다.

/김재정 기자

## 결혼

▲문명열(전 금파공고 교사)·유민숙씨 아들 준  
희(해남 우수영초 교사)군, 윤영기(광주일보 정  
치·경제담당 에디터)·김선희씨 딸 혜원(해남 황  
산초 교사)양=13일(토) 오후 12시 광주 글로벌  
아워딩홀(옛 데일리웨딩컨벤션) 1층 라비아홀.  
▲김성택·김광순씨 아들 욱전군, 이해음·박옥실  
씨 딸 송희양=13일(토) 오후 4시 메리포텐웨딩  
홀 메이에르홀(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·우산  
동 1589-1) 광주무역회관빌딩(0507-1401-4170).  
▲이장현·강영희씨 아들 원창군, 신승식·오형  
욱씨 딸 현선양=13일(토) 낮 12시20분 Jn아트  
컨벤션 2층 제이드팔리스홀(경기 광명시 비전5  
로 20-46). 031-653-5300.